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거나 초등학교 1학년쯤 되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묻기 시작한다. 부모가 그것에 대하여 말해주면 자녀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의 말하기에 자기가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일은 아니어도 그 설명을 믿는 것이다.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많다. 기원에 대한 것은 사람에게 근원적인 질문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대표적인 이론은 진화론이다.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기본적인 출발점에 관한 한 진화론도 '진화에 대한 신앙'에 근거한 것이다. 진화론과 창조론을 과학과 신앙의 대립으로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진화에 대한 믿음'과 '창조에 대한 믿음' 사이의 대립인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에서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도신경 첫 조항의 의미를 가르친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말로 고백한다.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근거하여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마치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출생에

대한 사실도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것처럼, 신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하면서 천지창조에 대하여 가르친다. 창조를 구원과 관련하여 가르치는 26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26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써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사도신경의 첫 구절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God the Father, Almighty)이라는 고백으로 시작한다. “전능하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읽으면 ‘전능하심’이 천지창조와 직결된다. 그런데 이 구절은 사도신경 중간 부분에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6항) 하는 부분에도 나온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언급되는 첫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지만 둘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중심에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고백한다. 즉 성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을 친히 제어하시면서 성자를 통하여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도신경에서 “전능하다는 것은 공허한 개념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채워진 개념이다.”¹⁾

사도신경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에 구속사적인 개념이 담겨 있다는 것은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자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죽은 몸과 같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서 언약의 자녀 이삭을 낳게 하셨다(창 17:1).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로 믿었다.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이야기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일과 관련이 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온전히 이루심을 생생하게 기록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전능한 자”(1:8) 혹은 “전능하신 이”(11:17)로 부르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1:8)고 하셨다. 여기에서도 그분의 전능하심은 일반적인 이야기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언약을 이루시는 면에서의 전능하심을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백성은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11:17)하고 찬송을 드린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26문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심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천지 창조를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이해하게 된다. 성부의 천지 창조를 말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함축한다. 우리는 성자를 통해서만 성부를 알 수 있고 성자의 사역을 통해서만 성부의 사역을 알 수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전능하신 성부의 천지 창조를 바르게 알 수 없다.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은 그 아드님만이 참되게 아시며, 또한 그 아드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들만이 그분을 알 수 있다(마 11:25-27. 참조. 요 8:19).

천지의 창조주를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절 아침에 하신 첫 마디 말씀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 20:17)는 말씀이었다.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 아버지와 너희 하나님’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부활의 목적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의 정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로 알려 주셨다. 하이델베르크의 선배들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우리는 창조와 구원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를 찬송하는 시편들을 보더라도 죄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등장한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옛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묵상

1) 로호만, 『사도신경해설』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57쪽

하면서 그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데 그 시편의 마지막은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는 말로 끝난다(시 104:35).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창조에 대한 찬송을 마감한다. 죄인은 창조주를 알 수 없다(롬 1:18-23). 오직 구원을 얻은 사람만 창조주를 바르게 알 수 있다.

성경에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 긴밀히 연결된 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잘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16세기의 다른 요리문답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다.

미크로니우스(Micronius, 1523-1559)의 소요리문답 (1552년)

48문: 성부에 대하여 고백한 말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만물의 창조주이고 보존자이며 통치자입니다. 나는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좋아하시며 기꺼이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요하네스 아 라스코(1499-1560)

라스코(Johannes a Lasco, 1499-1560)의 엠덴 소요리문답 (1554)

30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첫째 조항에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참되고 영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고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 주시고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16세기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으로써 창조와 구원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였다.²⁾

그러나 17세기의 과학 혁명과 함께 이신론(理神論)이 등장하면서 창조와 구원은 완전히 분리되었다. 프랑스의 계몽 철학자 프랑수와 볼테르가 ‘나는 창조주는 믿지 않지만 구속주는 믿



프랑수와 볼테르 (1694-1778)

지 않는다’ 하고 말한 것도 이러한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지에서 나온 말이다. 천지의 창조주만 믿고 구속주는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가 고백하는 창조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일 수 없다. 타락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창조주를 바르게 알 수 있고 그분을 통하여서만 언약의 관계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2) Lyle D. Bierma, The Theology of the Heidelberg Catechism (WJK, 2013), 46-48.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아버지를 신뢰함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신자들에게 큰 확신과 담력을 준다. 크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분의 권능이 나와 무관하겠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큰 확신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다. 따라서 창조의 사실이 우리에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말이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실 것'을 확신한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이시므로 우리는 큰 확신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신자가 사는 이 세상을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하였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에게 어떤 악을 '당하게도 하신다'. 우연히 어떤 악을 당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섭

리로써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적극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로 악을 '당하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을 당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실 이 죄악 된 세상에 계시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셨을 것이다. 이 세상이 바로 눈물 골짜기였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리셨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히 5:7).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과 연합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도록 하신 일은,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악'들 중에 대표적인 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악, 곧 그 십자가로써 구원의 대업을 이루셨다(행 4:27-28).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인 것이다.

“창조 - 타락 - 구속”이 현실적으로 함의하는 것

기독교세계관의 근본 동인으로 '창조 - 타락 - 구속'을 말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동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쉽지 않은 일이다. 성경과 사도신경에서 창조와 구속을 그 일어난 순서대로만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구속과 창조의 순서로 가르치는 점은, 우리의 생활과 관련하여서도 몇 가지 면에서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 특히 두 나라 사이의 '영적 대립'에 관하여서 더 철저하게 생각해 보게 만든다.

첫째, 창조를 기독교론적으로 본다는 것은 타락을 전제로 한다. 지금 있는 자연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타락을 전제하고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되돌아보는 것은 완전한 구속을 소망하게 한다. 지금은 피조물이 헛된 것에 굴복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롬 8:20-21). 처음 창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벧후 3:10-13; 사 66:22; 계 21:1).

둘째, 천지의 창조주이신 분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불신자에 대하여서도 좀 더 현실적으로 보게 하고 세상과 교회의 구분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 준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미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오직 구원을 얻은 자들뿐이다. 구속주를 믿지 않고서는 창조주를 알 수 없다.

기독교론적으로 창조를 이해하는 것은 중세에 풍미 하였던 ‘자연과 은혜’의 이원론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다. 자연의 영역은 사람의 이성으로 알 수 있고 은혜의 영역은 교회에서 알 수 있다는 식의 이원론은 성경적인 근거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1536-1587)

없다. 개신교회 안에서도 불신자의 선행과 덕을 ‘일반은혜’라는 말로 표현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일반은혜를 그러한 방식으로 주장한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의 길로 나아갔다는 점이다.³⁾ 창조의 일을 근거 삼아 불신자와 공유할 수 있는 ‘종립적인 영역’을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대립’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 종종 이러한 것은 세상과 타협하려는 자신의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정교하게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공동 저자로 알려진 올레비아누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구절을 이야기한 후에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였다.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바로 믿는 것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맺는 열매인 것이다.

끝으로, 보통은 천지창조에 대하여서는 낙관적이고 낭만

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의 요리문답에서는 천지창조를 이야기하는 이 26문에서조차 이 세상을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다(시 84:6). 이러한 표현은 이 요리문답을 작성하던 시대적 배경에서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요리문답이 출간된 1563년 당시에 개혁교인이 된다는 것은 로마가톨릭과 루터 교회 모두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이었고, 때로는 순교나 피난 생활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찾았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자에게 천지 창조의 깊은 뜻을 알려 주셨다. 그 뜻을 깨달은 그들은 자기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 눈을 돌리며 신앙을 고백하여 이 요리문답을 작성했고, 이것을 후대의 우리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글 | 김현수

총신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

3) 김현수, “일반은혜론 소고”, 『신앙과 학문』, 제9권 제1호 (2004, 6), 199-240. 특히 210, 233-234.

4) Caspar Olevianus, An Exposition of the Apostles' Creed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09), 25-26.